

“협력과 소통으로 전북건설 도약을”

도내 건설인 신년인사회 성황 송하진 지사 등 200여명 참석

도내 건설인들이 상호협력과 소통으로 전북 건설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자고 약속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11일 전북건설인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화합의 장인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전주 르윈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회 의장,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중식 전북조달청장 및 도내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역대 건설인들과 건설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정대영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국내 외 건설시장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기 와 기회는 공존한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소통과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화된 기술개발과 철저한 수익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혁신적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11일 전북건설인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전주 르윈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케익을 커팅하고 있다.

경영내실화 등 자구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협화에서는 새해에도 투명한 윤리경영과 건설관련 다양한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여 해결함으로써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상생발전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가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랑으로 미래건설’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건설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면 전북발전의 해답은 반드시 보인다”며 “절문근사(切問近思)의 자세로 건설업계에서도 지역 도민의 소원과 협업·협력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전북 건설 산업을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및 정대영 회장은 도정발전과 교육환

경 개선에 기여한 10명의 유공자에게 ‘포창장’과 6명의 신입회원에게 ‘회원증’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대영 회장은 지난 2015년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으로 취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전북지역 22호, 전국 1,008호 교액기부자로 ‘어니소사 이어티(Honor Society)’ 가입돼 왕성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노지채소 생산안정제사업 설명회

주산지협의회 구성 운영 생육~출하까지 면적조절 농가, 계약물량 출하 수행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11일 전북농협 상생관에서 지자체 및 농협시군지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생산안정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계약재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판매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해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 사업이 올해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급안정사업 정책방향, 생산안정제 추진계획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생산안정제사업은 주산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농업 관측정보 및 산지동향을 바탕으로 생육단계에서부터 출하까지 사전적 면적조절 및 가격폭등 폭락시 농가는 계약물량에 대한 출하

또는 시장격려의무를 수행한다.

또한 자체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해 면적조절, 분산출하, 시장격려 및 산지폐기 등에 사용하고, 농업인은 가격하락시 보전 기준가격(최근 5개년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 수준)을 보장받게 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전북도의 사업품목은 봄무, 가을배추, 양파 3품목이며 18년부터 고추가 추가될 예정이다.

출하안정제사업은 고정수요처 및 출하조절을 계약물량 등을 확보한 농협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으로 안정적 농가소득원 제공 및 수요처의 안정적 물량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도 사업품목은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이다.

이번 생산안정제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단위 품목별 주산지 협의회구성 및 세부 계획 수립, 수급사업 참여 농가대상 설명회 및 농가 계약재배 추진, 농협계통출하를 하게 되며 주산지협의회에서는 관측정보와 산지동향을 바탕으로 전북도 품목별 주산지 협의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안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동남아·대양주 하계스케줄 오픈

이스타항공이 11일부터 동남아·대양주 노선 하계스케줄 예약을 오픈한다.

하계스케줄 항공권은 오는 3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용가능하며, 인천-하노이, 인천-사이판 노선은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의 동남아·대양주 노선은 다구간 여정이 가능한 대만(김포-
/안재용 기자

송산, 인천-타이베이)을 비롯해 홍콩(인천-홍콩), 태국(인천-부산-방콕), 말레이시아(인천-코타키나바루), 베트남(인천-하노이), 미국(인천-사이판) 등 총 6개국 8개 노선이다.

동남아·대양주 하계스케줄 오픈을 기념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특가 항공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안재용 기자

아삭 달콤한 배, 이제는 요리로 드세요

농진청, 요리법 소개... 견과 넣어 영양가 높고 연어와 조화 이뤄

농촌진흥청은 우리 몸에 유익한 대표적 알칼리성 식품인 배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했다.

배(梨)는 수분함량이 85%~88%이며 열량은 51kcal/100g 정도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1g~2g/100g) 변비예방에 좋고 정장작용을 돕는다. 또한 발암성 물질의 체외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배에 많은 폴리페놀(polyphenol)과 플라보노이드(flavonoids) 성분이 항암·항염·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소개하는 배 요리법은 농촌진흥청과 (사)한국식생활문화회가 공동 주최한 배 이용 레시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2

점 ‘견과 품은 배’, ‘배·연어 타르타르 샌드위치’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가 추천한 1점 ‘배빵’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레시피는 활용성 및 영양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배 생과를 활용하면서 조리간 간편해 손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저지방 요리이다.

‘견과 품은 배’ 아이들 영양 간식이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으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우선 배를 반으로 자른 다음, 과육을 파낸다. 이때 껍질에 가까운 과육은 1cm~1.5cm 정도 남겨둔다. 후두, 아몬드 등을 볼에 담고 적당량의 꿀을 넣어 버무린다. 버무린 견과류를 파낸 배 속에 가득 채우고, 180℃에서 예열한 오븐에서 40

분~45분 정도 구워낸다. 완성된 요리는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맛이 좋다.

‘배·연어 타르타르 샌드위치’는 배의 아삭함과 시원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연어와 배의 조화가 이색적이다.

적양파를 차가운 물에 담가 매운 향미를 빼준 다음 배,적양파,연어를 네모상자 모양으로 작게 썬다. 썰어서 준비한 재료에 홀스래디쉬 소스 마요네즈에 레몬즙, 고추냉이, 다진양파 등을 넣어 만든 서양식 소스를 넣고 버무린다.

바삭하게 구운 호밀빵에 크림치즈를 펴 바른 뒤, 배를 얇은 두께로 썰어 빵 위에 올린다. 그 위에 버무린 속 재료를 올려놓는다. 기호에 따라 허브를 곁들여 먹으면 된다. 또한 배건과와 배즙을 이용해 설당이 적게 첨가된 배빵을 만들 어볼 수 있다.

배의 전체 당 함량은 10%~13%이며, 말리거나 잼으로 만들면 생과보다 당도가 4배~5배 높아져 약 10%Bx~13%Bx가 된다. 이를 다시 가정용 식품건조기에 넣고 말리면 50%Bx~60%Bx 정도가 된다.

따라서 빵을 만들 때 말린 배를 넣으면 설탕 첨가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마들렌(작은 카스텔라)빵을 만들 때 밀가루 400g 반죽 기준으로 말린 배 200g을 넣으면 설탕 첨가량은 400g에서 100g~150g으로 줄어든다.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이주현 농업연구사는 “배는 생과로도 맛있지만 색다르게 요리로 만들어 먹는다면 건강한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특별한 일품음식이 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銀, 설 특별운전자금 1700억 지원

전북은행은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하기로 한 특별운전자금의 지원규모는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총 1,700억원 한도로 설정했다.

대상 대출은 상업 어음할인 및 소요 운전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1년 이하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이며,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출 금리는 최고 1.67%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설 특별운전자금은 지속적인 경기부진에 따라 유통성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게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기자

전북경진원 - 전주시 ‘맛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동네 꽃집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주시가 손을 잡았다.

경진원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주시를 20점포 신청을 받아 동네꽃집과 연계해 1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나들가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안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真心
홍삼주